

이달의 초점

한국의 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 장윤선, 김태완 |

소득이동통계를 이용한 사회이동성 진단

| 권신정 |

자산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함의

| 이주미 |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 임완섭 |

세대 간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분석

| 김기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세대 간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분석¹⁾

An Analysis of Mobility of Social Network Across Generations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개인의 사회적 관계, 즉 네트워크는 사회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국내외에서 사회적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관계적 취약성이 가장 높고, 학력 및 연령에 따른 관계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 네트워크의 대물림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관계망이 클수록 자녀의 단체 참여 및 문화예술 활동 관람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소득이나 학력과 같은 변수를 통제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네트워크의 세대 간 대물림은 관계의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술적 추가 분석과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1 들어가며

개인 혹은 개인의 부모가 가진 사회적 관계망은 당사자의 사회적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도 가능하다. 개인의 교육 성취

에는 “조부모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김재윤, 2009. 9. 22.)과 같은 가족적 배경이 있다는 씁쓸한 통념을 곱씹어 보자. 한 사람의 세속적 성공 배경에는 결국 윗세대의 경제력, 그리고 부모 세대의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서 정

1) 이 글은 김태완, 김기태, 김문길, 임완섭, 이주미, 조보배, 장윤선, 김한나, 박형준, 윤상용, 이석민, 권신정, 김우성. (2025).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8장을 요약,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보력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성적 상위권 자녀를 둔 서울 지역 중산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강문정(2017)은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 이행의 핵심적인 고리로 ‘학습 공간으로서의 학부모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또한 질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강문정(2017, p. 88)은 “어떤 학부모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어떤 학습 네트워크를 보유하는가이며, 결국 내가 어떤 학부모가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특정한 학부모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은 초등 학부모로서의 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찰은 물론 한국의 특정 지역, 즉 서울에서 다소 극단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 사교육과 계급 재생산 관계의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어학연수나 사교육과 같은 변수가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작동했다는 실증분석도 다수 제시됐다(김수혜, 김경근, 2010; 장수명 외, 2016).

개인 혹은 개인의 부모가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에 근사한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은 유럽과 미국의 사회학계에서 개별적으로 제안됐다. 논의의 맥락도 조금 다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1985)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정의 제도화된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했다(p. 248; 정세정 외, 2021, p. 58 재인용). Bourdieu(1985)는 사회적 자본이 누

적된 특정 집단이 이를 대물림하는 과정, 즉 불평등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춰 제시했다.

미국 사회학자들에게 사회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를테면 Coleman(1988)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중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형태로 의무와 기대, 정보 경로, 사회 규범을 제시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Putnam(1995, p. 67)에게 사회적 자본은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서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의미한다. Putnam(1995)은 한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신뢰, 호혜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제시했다.

사회적 이동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 개념을 설명하는 시도도 있다. 영국의 Social Mobility Commission(2024, p. 87)은 사회적 자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관계(relationships)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한다”.

사회자본에 관한 이상의 네 가지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의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이 추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utnam(1995)이 논의한 사회적 자본의 요소 가운데 규범이나 조정과 협력, 신뢰 등의 요소는 개인의 자산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규범적인 관계들이 집적됐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자산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ourdieu(1985)와 Coleman(1988)은

[표 1] 사회자본의 정의 및 사회적 관계

Bourdieu(1985)	“상호 인식과 인정의 제도화된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p. 248; 정세정 외, 2021, p. 58에서 재인용).
Coleman(1988)	사회자본의 세 가지 형태로 의무와 기대, 정보 경로, 사회 규범을 제시
Putnam(1995)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 규범,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를 포함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p. 67)
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	“사회적 연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한다.” (p. 87)

출처: 저자가 종합해서 작성함.

개인이 보유한 자원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또 부모 세대가 가진 특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Bourdieu(1985)의 사회자본 개념이 이번 연구에 상대적으로 근접한다.²⁾ 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에서도 사회자본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연결’과 ‘관계’를 제시했다.

이 글에서도 개인의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하는 맥락에서 ‘관계’ 혹은 ‘네트워크’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세대 내 관계의 이동성보다는 세대 간 관계의 이동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세대 간 관계의 이동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대물림이라는 일반적인 표현과 병용했다. 이 글에서는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뒤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가 대물림되는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2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에 관한 선행 연구

세대 간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선행 국내외 실증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사회적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그 역시 “놀라울 정도로 제한된 관심을 받았다(attracted surprisingly limited interest in the existing literature)” (Brown et al., 2014, p. 5).³⁾ 영국의 Social Mobility Commission에서도 사회적 이동을 추동하는 아동·청년기 요인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참여 등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을 꼽았다 (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 그림 1). 나머지 세 가지는 아동빈곤 등 아동기 여건, 학교의 질 등을 포함하는 교육 기회 및 질, 공석률(vacancy rate) 등 일자리의 기회와 질이다. 영국의 사회이동

2) 물론 다른 사회학자들도 사회자본의 대물림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Putnam(2000, p. 299)은 “부모의 사회적 자본은 ... 재정적 및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언급했다.

3) 물론 Brown 외(2014)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회자본,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은 모두 다른 개념이지만,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비물질적인 관계의 질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성위원회는 이렇게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124쪽의 보고서에서 한 쪽만을 사회적 자본 및 연결(social capital and connections)에 할애했다. 보고서에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역할은 교육이나 일자리의 역할보다 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더 역동적인 경제와 사회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p. 87)라고만 짧게 언급되어 있다. 다시 말해 중요성에 대해서는 주목했지만, 그에 대한 근거 제시는 없었다.

이러한 직관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실제로 희소하다. 관련 연구들을 열셋말로 두루 검색한 결과 관계망의 대물림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통틀어 세 편 정도만 검색됐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Brown 외(2014)는 이 주제에 관련한 선구적인 연구다. 이들은 영국의 아동발달연구(Child Development Study) 자료와 미국의 소득동태패널조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활용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2007년 소득동태패널조사에서 부모와 아이들의 자료가 확보된 1020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현재 자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에서 부모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원봉사, 스포츠,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범주의 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간으로 측정됐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참여하는 클럽 수로 측정됐다. 통제 변수로는 자녀의 친구 수, 자녀가 소유한 서적 수 외에도 부모의 학력,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

도 포함됐다. 결과를 보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친구 수, 부모 학력, 부모 재력(주택 소유 유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2007년 기준으로 세 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해 있을 경우 자녀가 같은 해 세 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했을 확률이 14%포인트 증가하였다. 영국의 패널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Okumura & Usui(2010)의 연구는 부모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 자녀의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NLSY79) 자료를 활용했다. 여기에서 부모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사전(DOT: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의 직업 특성을 사용하여 부모의 대인 기술을 대리 측정했다. 이러한 대리 측정은 Borghans 외(2008)가 개발한 대인 상호작용의 할당 모델에 근거한다. 즉 근로자의 행동이 직무 환경과 근로자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그리고 자녀의 교육 수준과 인지 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DOT 대인 기술 변수들 가운데 다수가 자녀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Duncan 외(2005)도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어로 치면 ‘부전자전(父傳子傳)’에 해당하는 제목이다. 이들은 미국의 전국청년종단조사(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등의

[그림 1] 영국 사회이동성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회이동성의 동인



출처: "Drivers of Social Mobility", 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 p. 19. <https://socialmobility.independent-commission.uk/app/uploads/2024/09/State-of-the-Nation-2024.pdf>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17가지 특성의 대물림 양상을 분석했다. 17가지 특성으로는 마리화나 복용 경험, 15세 이전 성 경험, 수학 성적, 자존감 등인데, 여기에 학교

동아리 참여 경험도 포함됐다. 이 연구의 초점은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청소년기에 학교 동아리에 참여했다고 답한 경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딸의 청소년기 학교

[표 2] 사회적 관계의 대물림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자료	부모의 네트워크	자녀의 네트워크
Brown et al. (2014)	영국 CDS 1981, 1991	부모의 참여 클럽 수 (1981, 1991년 기준)	자녀의 참여 클럽 수 (1991년 기준)
	미국 PSID 1997, 2007	부모의 참여 클럽 수 및 참여 시간 (1997, 2007년 기준)	자녀의 참여 클럽 수 (2007년 기준)
Okumura & Usui (2010)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NLSY79).	부모의 DOT 대인 기술 변수 (미국 노동부의 직업사전(DOT: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분류 기준)	자녀의 사회성 관련 주관적 응답 참여 클럽 수 (고등학교 때)
Duncan et al. (2005)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1984*, the Children of the NLSY (CNLSY) 1984년 이후	부모의 학교 클럽 참여 경험 (1984년 기준)	자녀의 참여 클럽 수(1984년 이후)

주: Duncan et al.(2005)에서 부모의 특성 대부분은 NLSY 1979년 자료를 활용했지만, 학교 클럽 참여 경험은 1984년 자료를 활용함. 출처: 연구진이 종합해서 작성함.

동아리 참여 승산비(odds ratio)가 1.85배 높았다. 다른 통제 변수, 즉 다른 16가지 다른 특성과 행동, 연령, 인종·민족을 포함하면 승산비가 1.39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도 어머니의 클럽 참여 경험 그 자체가 딸의 클럽 참여 승산을 1.39배 높였다는 의미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있다. 미국에서 자녀의 인적 네트워크를 묻는 항목으로 자주 활용되는 ‘참여 클럽 수’를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클럽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고등학교 문화에서의 클럽과 한국의 ‘동아리’가 의미하는 바가 같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Okumura & Usui(2010, p. 7)가 활용한 NLSY 설문지에서 제시된 클럽은 다음과 같다. “① 스카우트, YMCA, Junior Achievement와 같은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② 사진이나 역사 같은 학교에서 후원하는 취미 또는 주제 관련 동아리, ③ 학생회 또는 학생 자치회, ④ 연감, 학교 신문, 잡지, 안내서 등의 제작진, ⑤ 응원단과 응원 동아리를 포함한 체육 활동, ⑥ 밴드, 연극,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공연 예술, ⑦ 전국 우등생 협회 또는 학업 성취 동아리, ⑧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관계 혹은 네트워크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는 흥미롭게도 동물 사회에서도 관찰됐다(Ilany et al., 2021).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연구팀은 27년에 걸쳐 수집된 야생 점박이하이어나 7만 3767건의 사회적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하이어나

사회에서 관계의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속 과정이 자손들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자손과 다른 하이어나들 사이의 관계는 최대 6년 동안 어미의 관계와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 유사성의 정도는 어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증가했다. 야생의 동물들도 적대적 혹은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위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계를 상속받음을 확인한 연구였다.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및 대물림에 관한 국내 연구는 희소하다.

학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의 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한국에서 가장 낮은 80.5%였다(OECD, 2024). 열 명 가운데 두 명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다는 뜻이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이 90.4%였고, 한국 다음으로 비율이 낮은 튀르키예의 비율은 84.5%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관계의 질이 낮다고 이해하는 것은 다소 선부른 해석일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90%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고, 한

국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80%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열 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도움 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 즉 '주관적 측면에서의 관계적 취약계층'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세대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크다. OECD(2016)를 보면 동일한 문항에 대해 한국의 청년층(15~29세 기준) 가운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3.3%로 OECD 평균(95.2%)에 근접했다(그림 2).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악화해 50세 이상 집단 가운데 비율이 60.9%로 떨어졌다. 다른 OECD 회원국과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결과에 연령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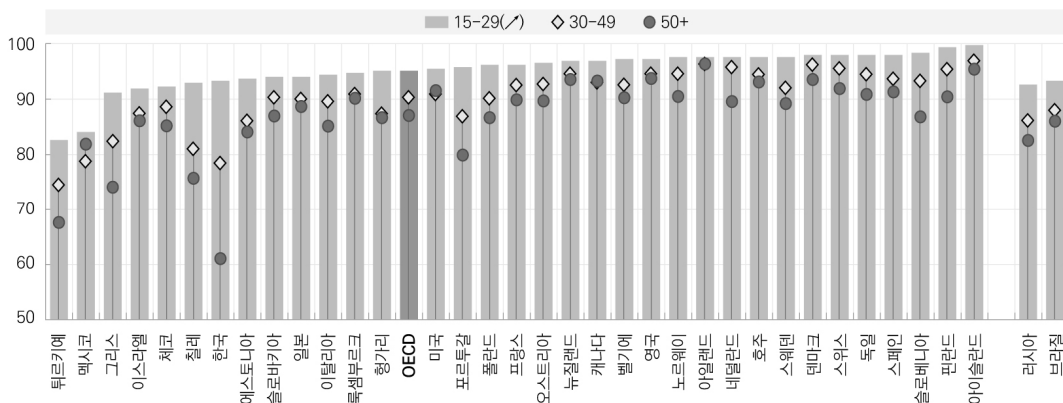
와 코호트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관계의 불평등 수준도 한국에서 높다. OECD(2020)를 보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학력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초등 교육만 받은 사람이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 9%포인트 낮았다. 그 차이가 한국에서는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반면 스위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격차가 2%포인트 미만이였다. [그림 3]을 보면 한국(그림에서 가장 왼쪽)의 차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극단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종합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

[그림 2]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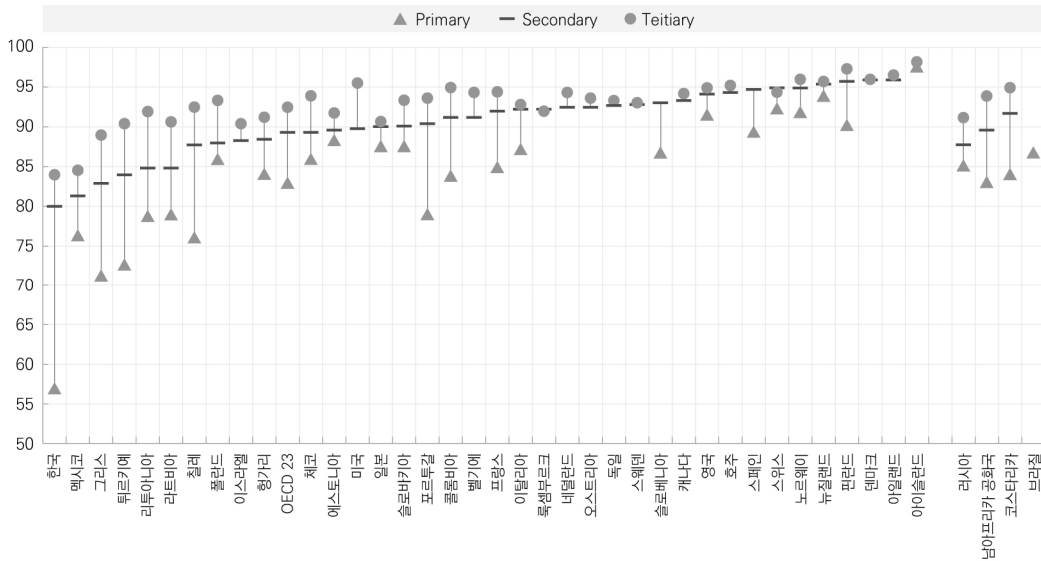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7.13. Social Support is highest amongst youth", OECD, 2016,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6/10/society-at-a-glance-2016_g1g6c2d1/9789264261488-en.pdf

[그림 3]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단위: %)



출처: "How's Life? 2020", OECD, 2020, Figure 11.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ow-s-life/volume-/issue-_9870c393-en/full-report/component-14.html#chapter-d1e14471

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적 취약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연령 혹은 코호트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세대 내 관계의 이동성은 부정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미루어 볼 때 한국에서 관계의 세대 간 이동성은 낮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관계 혹은 네트워크의 대물림에 관한 이론적 검토 혹은 실증적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음 절에서는 국내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3 분석 결과

가. 활용 자료 및 분석 개요

부모와 자녀 세대의 관계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국내 자료는 희소하다. 특히 미국처럼 시계열이 긴 패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선행 연구 (Okumura & Usui, 2010; Brown et al., 2014) 와 같은 관계의 대물림에 대해 시차를 둔 자료를 활용해 실증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국내 자료 가운데 연구 주제와 근접한 문항을 담은 자료는 사회조사다. 사회조사는 사회적 관계망 및 참여에 관한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사회조사 자료는 2009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현재 부모의 네트워크와 자녀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인 및 분석했다.

자료 분석에서 한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다. 미국의 관련 연구에서 부모의 현재 참여 클럽 수를 관계의 대물림 측면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Brown et al., 2014). 현재 자녀의 클럽 참여를 돕다가 부모가 클럽에 참여하는 식으로 역인과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조사 분석에서는 부모의 네트워크와 자녀의 네트워크를 다른 문항을 활용해 확인했다. 부모의 경우에는 흔히 사회적 관계망을 확인하는 설문인 ① 몸이 아파 집안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통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참고로 사회조사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가사도우미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사회복지 단체의 활동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 p. 8).

자녀의 경우에는 서구와 같은 클럽 참여에 관한 문항은 없다. 다만 사회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문항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참여 문항을 살펴보았다. 4) 첫째, 단체 참여 문항이다. 설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아홉 개 유형 단체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물었다. 아홉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친목·사교, ② 종교, ③ 취미·스포츠·여가, ④ 시민사회, ⑤ 학술, ⑥ 이익, ⑦ 정치, ⑧ 지역사회, ⑨ 기타 등이다. 그리고 아홉 개 유형 단체 참여 여부를 더미 변수로 해서 합한 ‘단체 참여’ 변수를 생성했다. 여기에는 별도 문항인 지난 1년 동안의 ‘기부 여부’도 추가했다. 기부도 하나의 참여 형태로 간주했다. 해당 문항 응답에 관한 기초 통계량은 <표 3>에 제시했다. 둘째,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이다. 여기에서도 아홉 가지 유형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관람 횟수를 설문했다. 전체 관람 횟수를 합한 ‘문화 관람’ 변수도 만들었다.⁵⁾

부모의 경우 어려움에 처할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로 네트워크를 확인했고, 자녀의 경우 세 가지 참여 유형에 따라 참여 변수를 생성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물론 두 가지 네트워크의 성격이 다르다. 개인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사회 참여가 누적되면서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그 결과 어려움에 처

4) 청소년 혹은 청년 자원봉사 활동도 고려할 수 있었다. 실제로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3개의 자원봉사 참여 형태에 대한 참여 횟수를 각각 설문했다. 전체 참여 횟수를 합한 변수로 ‘자원봉사’ 변수도 생성해 실제 분석도 수행했다. 그렇지만 이 글의 집필 단계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은 네트워크 참여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에 학교 환경이나 진학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점(이용관, 2015)을 고려했다. 둘째, 자녀의 단체 참여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이 부모의 사회적 자본과 일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자녀의 자원봉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이용관(2015)의 분석이 암시하듯이 자원봉사 참여에는 관계의 대물림보다는 학교 환경 등 다른 변수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사회조사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항목에서 ‘지난 1년 동안 참여 횟수’를 설문하면서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일부는 0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과정에서는 이들을 모두 0으로 간주했다.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자, 즉 다양한 사회 참여를 네트워크 I로 명명하고, 그에 따라 누적된 지지망을 네트워크 II로 조작적 정의를 하겠다. 이번 분석에서는 부모의 네트워크 II와 자녀의 네트워크 I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녀의 현재 다양한 유형의 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I이 부모가 인생 경로를 통해 누적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부모가 누적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녀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이번 분석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뒀다. 즉 관계 및 네트워크의 대물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이다.

소득의 경우 사회조사에서는 가구 단위의 소득을 범주로 설문했다. 이럴 경우 가구 규모를 고려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1인 가구의 소득 400만 원이 4인 가구에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계층의식에 대한 답변 문항을 활용했다. 설문지에서는 ‘귀하의 사회 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에서 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의 여섯 범주로 나누어서 설문했지만, 자료에서는 상중하 세 가지 범주만 제시됐다.

자녀와 부모의 조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분석

대상자를 한정했다. 자녀의 경우 만 13~24세 자녀에 한정해서 동거하는 부모와 본인의 네트워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나이를 이와 같이 한정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하한을 13세로 둔 이유는 사회조사가 설문 대상을 표본 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녀의 연령 상한을 24세로 둔 이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사회조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25세 이상 청년을 포함할 경우 해당 연령대에서 부모로부터 가구 분리한 청년은 분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즉 25세 이상의 자녀는 상당수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참고로 이원진 외(2022)에 따르면 25~26세 청년의 74~83%는 정규교육을 완료하였고, 65%는 취업 상태에 있으며, 33% 이상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다.⁶⁾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네트워크 정보를 담은 부모와 24세 미만 자녀가 있는 동거 가구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다. 이러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두 포함했다.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녀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부모와 자녀의 참여 및 네트워크 관련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면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13~24세 자녀의 수는 3254명이 추출됐다. 이들은 모두 부모 중에 한 명이 가구주인 가구원이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주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해당 집단은 13~24세 대상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고 가구주 설문 문항에 응답했기 때문이다(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

[표 3] 부모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와 기초 통계

	변수 정의	사례 수	평균	분산	최소	최대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단체 참여 (지난 1년 동안 아홉 개 유형의 단체 혹은 기부 참여 여부 더미 변수의 합)	3,254	1.05	1.20	0	8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지난 1년 동안 아홉 개 유형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의 합)	3,254	6.21	8.15	0	105
	③ 자녀의 네트워크 I (위의 ①, ② 변수의 합)	3,254	7.26	8.49	0	106
부의 네트워크 II	① 몸이 아파 집안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989	1.71	1.68	0	12
	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989	1.14	1.51	0	15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989	2.19	2.33	0	20
	④ 부의 네트워크 II (위의 ①, ②, ③ 변수의 합)	1,989	5.04	4.59	0	40
모의 네트워크 II	① 몸이 아파 집안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2,206	1.73	1.68	0	20
	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2,206	1.15	1.62	0	20
	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2,206	2.45	2.21	0	20
	④ 모의 네트워크 II (위의 ①, ②, ③ 변수의 합)	2,206	5.34	4.57	0	60

주: 개인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을 필자가 분석함.

나. 분석 결과

먼저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네트워크 추이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부모의 네트워크 II 변수, 즉 앞서 ①~③ 유형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변인 수의 합에 따른 비율을 <표 4>에 제시했다. 이렇게 부모의 네트워크 II 변수에 따른 자녀의 ① 단체 참여,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건수의 차이를 분석했다. 먼저 단체 참여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먼저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단체 참여 여부를 보았다. 여기서 단체 참여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아홉 가지 유형의 단체에 참여한 경험을 더미 변수로 생성해 더한 값이다. 아홉 개 유형을 모두 더해도 평균 1.05에 불과했다. 바꾸어 말하면 1인당 평균 한 개 유형의 단체에 참여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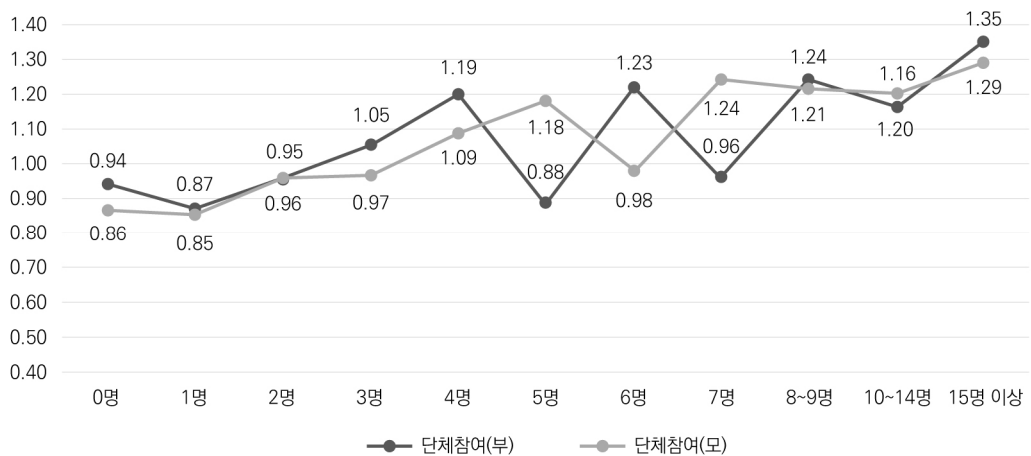
[표 4] 부모의 네트워크 분포

아빠의 네트워크 II		엄마의 네트워크 II	
세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줄 사람의 수 ¹⁾	비율(%)	세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줄 사람의 수	비율(%)
0명	13.41	0명	9.49
1명	5.79	1명	6.43
2명	11.45	2명	9.62
3명	13.36	3명	12.56
4명	9.48	4명	10.51
5명	8.22	5명	9.20
6명	11.16	6명	11.98
7명	6.63	7명	7.16
8~9명	7.83	8~9명	10.50
10~14명	8.77	10~14명	8.73
15명 이상	3.90	15명 이상	3.81

주: 1) <표 3>에서 ①~③ 유형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변인 수의 합.
2) 개인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을 필자가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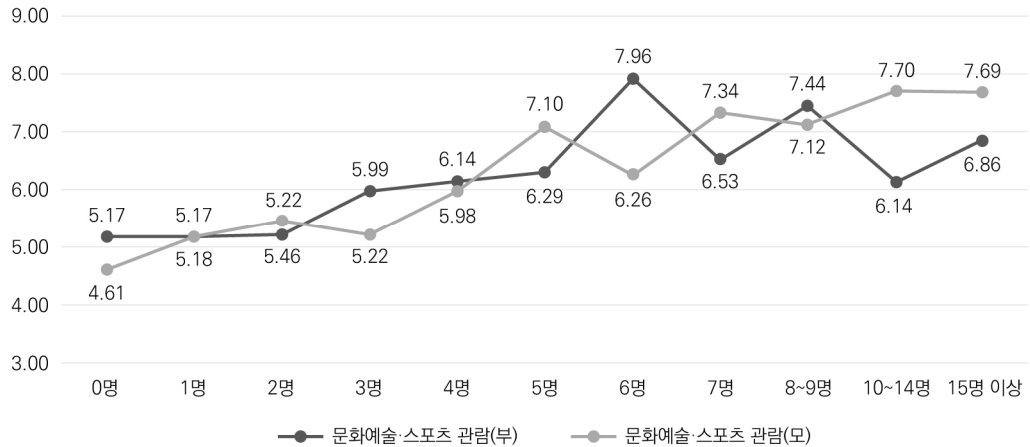
[그림 4] 부모의 네트워크 II 수준에 따른 자녀의 단체 참여 횟수



주: 개인 가중치 적용.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을 필자가 분석함.

[그림 5] 부모의 네트워크 II에 따른 자녀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주: 사회조사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을 필자가 분석함.

다. 이를테면 학술단체 참여 경험은 8%에 불과했다. 부와 모 모두에게서 이들의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자녀의 단체 참여 유형은 완만히 증가했다. 이런 집단별 단체 참여 유형의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물론 부모의 네트워크가 4~9명인 영역에서는 평균에서 일관성 없는 증감이 있는 점도 관찰된다. [그림 5]는 부모의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자녀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의 추이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도 부와 모 모두에게서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자녀의 관람 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집단 사이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다음으로, 부와 모의 네트워크 측정 변수 네 가지(① 몸이 아플 때, ② 큰돈이 필요할 때, ③ 우울할 때, ④ ①~③ 변수값의 합)와 자녀의 네트워크 측

정 변수 세 가지(① 단체 참여,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③ ①, ②의 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표 5>와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부와 모의 모든 네트워크 변수와 자녀의 모든 네트워크 변수 사이들 사이에서 예외 없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현재 단체 참여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경험이 부모의 누적된 사회적 네트워크에 시간을 거슬러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부모의 관계망 혹은 네트워크가 현재 자녀의 사회 활동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 네트워크의 대물림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자녀의 네트워크 I을 종속변수로, 부와 모의 네트워크 II를 독립변수로 활용했다. 가구의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통제변수

로 활용했다. 다만 소득액이 아니라 소득 구간(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500만 원 미만, 500만~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으로 제시돼 가구 균등화하지 않은 구간값을 활

용했다. 부모의 학력은 ① 받지 않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제시됐다.

먼저 부의 네트워크 II를 독립변수로 놓고 분석한

[표 5] 아빠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 사이 상관관계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단체 참여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③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②의 합)
부의 네트워크 II	① 몸이 아플 때	0.079 (0.000)	0.054 (0.004)	0.064 (0.001)
	② 큰돈이 필요할 때	0.059 (0.002)	0.047 (0.012)	0.054 (0.004)
	③ 우울할 때	0.056 (0.003)	0.051 (0.007)	0.057 (0.002)
	④ 부의 네트워크 II (①~③ 변수값의 합)	0.077 (0.000)	0.061 (0.001)	0.070 (0.000)

주: 사회조사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을 필자가 분석함.

[표 6] 엄마와 자녀 네트워크 변수 사이 상관관계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단체 참여	②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③ 자녀의 네트워크 I (①, ②의 합)
모의 네트워크 II	① 몸이 아플 때	0.066 (0.000)	0.077 (0.000)	0.084 (0.000)
	② 큰돈이 필요할 때	0.079 (0.000)	0.053 (0.003)	0.062 (0.001)
	③ 우울할 때	0.083 (0.000)	0.060 (0.001)	0.070 (0.000)
	④ 모의 네트워크 II (①~③ 변수값의 합)	0.093 (0.000)	0.076 (0.000)	0.087 (0.000)

주: 사회조사 자료를 저자가 개인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을 필자가 분석함.

모델 1을 보면 회귀분석 결과 계수는 0.015이며, p-value는 0.005이다. 아버지의 네트워크가 1단위 증가할수록 참여 지수는 약 1.5%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아버지의 네트워크가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소득도 자녀의 네트워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모의 네트워크 II를 독립변수로 놓고 분석한 모델 2에서도 모의 네트워크의 계수는 0.021이었다. 어머니의 네트워크가 1단위 증가할수록 참여 지수는 약 2.1%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어머니

가 아버지(0.015)보다 계수값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구체적인 사회 활동 과정에서 어머니가 주는 정서적·도구적 지지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델 2에서도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소득이 자녀의 네트워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모델 3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네트워크 II와 교육 수준을 모두 변수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네트워크는 자녀의 네트워크와 강한 유의성을 유지했다. 부모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계수

[표 7] 부모의 네트워크 II가 자녀의 네트워크 I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델 1(부 요인)	모델 2(모 요인)	모델 3 (부모 요인 통합 모델)
부의 교육 수준	0.092*** (0.018)		0.067** (0.022)
부의 네트워크	0.015** (0.005)		0.010* (0.005)
모의 교육 수준		0.093*** (0.020)	0.056* (0.025)
모의 네트워크		0.021*** (0.004)	0.017*** (0.005)
가구 소득	0.052*** (0.014)	0.054*** (0.013)	0.045** (0.015)
상수항	0.959 (0.095)	0.930*** (0.094)	0.810*** (0.108)
관측치 수(N)	2,844	3,119	2,709
R-squared	0.034	0.038	0.045
F-통계량	22.73	27.91	17.08

주: 1) 자녀의 네트워크 I값은 로그 변환함. 계수값은 비표준화계수(B),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2) 가구원 가중값이 적용됨.

3) * p<.05, ** p<.01, *** p<.001.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3을 필자가 분석함.

크기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사회적 참여 활동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다소 컸다. 반면 어머니의 네트워크가 아버지의 네트워크보다 계수의 크기가 컸다. 가구 소득도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자녀의 사회적 참여에서 가족의 경제적인 여력, 부모의 교육적 배경과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모두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녀의 사회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관련한 선행 연구는 해외에서도 희소하다. 소수의 해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양은 자녀의 사회 활동, 특히 학교에서의 클럽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경제적 자본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도 세대를 넘어 이동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관련 연구가 희소한 점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로 측정된 사회적 관계망(네트워크 II)과 자녀의 단체 참여 및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경험(네트워크 I)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의 관계망이 클수록 자녀의 사회 참여 및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도 증가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가구 소득 수준을 통제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대물림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 글은 관계 혹은 네트워크의 대물림에 대해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은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분석 대상 자녀의 연령 범위는 만 13~24세로 넓었다. 중학생부터 청년까지 아우르는 다소 이질적인 연령 집단의 단체 참여 및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활동을 동일한 '네트워크' 개념으로 묶어 해석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녀 집단을 연령대로 나눠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과 학력에 따라 관계의 양극화가 극심한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문정. (2017). **초등학교 학부모 되기: 상위권 자녀를 둔 서울 거주 중산층 엄마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수혜, 김경근. (2010). 세대 간 지위이동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사교육 및 어학연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3), 1-26.

- 김재윤. (2009. 9. 22.). 할아버지 재력, 엄마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자녀교육의 키워드?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4145137>
- 김태완, 김기태, 김문길, 임완섭, 이주미, 조보배, 장윤선, 김한나, 박형준, 윤상용, 이석민, 권신정, 김우성. (2025).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관. (2015).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보건사회연구**, 35(1), 275-298.
- 이원진, 김기태, 신영규, 임덕영, 함선유, 남윤재. (2022).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보장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수명, 한치록, 여유진. (2016). 사교육 금지 정책과 계급이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정책**, 23(1), 179-202.
- 정세정, 김기태, 김태완, 류진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3). **2023년 사회조사표(가구원)**.
- 통계청. (2023). 사회조사 원자료 [데이터 세트].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
- Borghans, L., ter Weel, B., & Weinberg, B. A. (2008). Interpersonal styles and labor market outcom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4), 815-858.
- Bourdieu, P. (1985).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Greenwood Press.
- Brown, S., McHardy, J., & Taylor, K. (2014).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skills: an analysis of US and UK panel dat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40, 43-54.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1), S95-S120.
- Duncan, G. J., Kalil, A., Mayer, S. E., Tepper, R., & Payne, M. R. (2005).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In S. Bowles, H. Gintis, & M. Osborne Groves (Eds.), *Unequal chances: Family background and economic success* (pp. 23-7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lany, A., Holekamp, K. E., & Akçay, E. (2021). Rank-dependent social inheritance determines social network structure in spotted hyenas. *Science*, 373(6552), 348-352.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 OECD. (2020). *How's Life? 2020*.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ow-s-life/volume-/issue-_9870c393-en/full-report/component-14.html#chapter-d1e14471
- OECD. (2024).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DF_HSL_CWB&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df\[ag\]=OECD.WISE.WDP&df\[vs\]=&pd=2019%2C2024&dq=.8_2%2B7_1%2B7_1_DEP.YOUNG%2B_T._T._T.&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DF_HSL_CWB&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HSL%40DF_HSL_CWB&df[ag]=OECD.WISE.WDP&df[vs]=&pd=2019%2C2024&dq=.8_2%2B7_1%2B7_1_DEP.YOUNG%2B_T._T._T.&to[TIME_PERIOD]=false)
- Okumura, T., & Usui, E. (2010). *Do Parents' Social Skills Influence Their Children's*

Sociability? IZA Discussion Papers No. 5324,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Social Mobility Commission. (2024). *State of the Nation 2024*. UK Government. <https://social-mobility.independent-commission.uk/app/uploads/2024/09/State-of-the-Nation-2024.pdf>

An Analysis of Mobility of Social Network Across Generations

Kim, Ki-ta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dividuals' social connectedness—that is, their social network—affects their social mobility in important ways. Yet empirical investigations into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al networks remain scarce both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Korea ranks lowest among OECD countries in social connectedness and exhibits the largest disparities in social connections across age groups and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have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Drawing on data from the 2023 Social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social networks are transmitted from parents to their children.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ildren of parents with larger social network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associations and attend cultural and arts events. These relationships rem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 The intergenerational reproduction of social networks, which are unequally distributed across socioeconomic groups, may constitute a major barrier to social mobility. Further academic investigation and policy attention are needed.